

송영길 '조국과 갈라서기' 언급했지만... 與, 여전히 자중지란

宋 “민주당-조국, 각자의 길 가야... 이제는 민생으로 가야”
박용진 “晝, 반성하는지 몰라”... 정청래 “잘 못 지켜줘 미안”
김한정 “당이 나서 부관참시”... 강성 지지층 “宋, 反정부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우기에 나섰다.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당 내부에서 여전히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대표는 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과 조 전 장관은 이제 각자의 길로 가야 한다”며 “어제(2일)부로 민주당에서 조국 문제는 정리됐다. 나도 더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문제는 조 전 장관이 법원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다투고 해결할 문제이다”며 “민주당은 내년 3월에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를 평가하는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년간의 민주당의 활동과 새 대선 후보의 비전이 결합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대선에서 받게 될 것이다”며 “이제는 민생으로 가야 한다. 조국의 시간이 아닌 민생의 시간이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2일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보고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입시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성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송 대표가 조 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지우기에 나섰다. 여당은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박민기 기자

장관 지우기에 나섰다. 분석을 내놓고 있다. 47재보궐선거 국면에서 재점화된 조 전 장관 관련 논란을 이번 사과를 통해

마무리짓고 선을 긋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당의 분위기는 그렇지 못하다. 조 전 장관은 대권주자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 회고록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자신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모르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총장으로 추천한 분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이어 “당시 많은 분들이 (윤 전 총장 추천에)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했었고 민주당 안에서 의총 안에서도 그랬다”며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우려된다, 반대한다고 하는 의사를 전달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이분은 왜 이런 부정확한 말을 하실까”라며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여당 안팎에서도 극심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성 친문재인계 인사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은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희생양이다”며 “더 힘차게 지켜줘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30년지기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골라 패도 정도가 있지 너무 심하다. 당이 왜 나서냐”며 “본인은 ‘자기를 밟고 앞으로 가라’고 말하지만, 당까지 나서서 부관참시도 아니고 밟고 또 밟아야 하겠다. 그러면 지지도가 올라가냐”고 밝혔다.

강성 지지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송 대표의 사과를 비판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강성 지지자들은 “민심도, 도의도 모르고 반(反) 정부질한다”, “국민의힘으로 가라”, “사퇴하라” 등 거친 반응을 내놓았다.

조성우 기자

뉴스드립

文 “공군 성폭력 사망 엄정처리, 가슴 아파”... “김성팔이 손가락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하면서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 아파드라”고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때다 싶어 손가락 없는 김성팔이 대통령”이라며 혀를 찼다.

kt1*** 하여간 이때다 싶어서 김성팔이 하나는 잘해도, 박원순 맨 성대하게 장례식 치뤘으면서, 김성팔이 손가락 대통령이네.

5606*** 여성을 위한다고 나는 “페미 대통령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문재인 본인인데 대통령되고 공직자강이나 공직자 성폭력은 더 늘어나고, 군대내 성폭력도 늘어나고, 민주당은 정권 잡아서 기고만장해진 건지 고위 공직자 성폭력은 죄다 민주당이네.

軍 급식비 내달부터 1만원으로 긴급인상... “돈부터 뿌리고 보나”

국방부가 3일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P)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급식비를 내달부터 기존보다 13.8% 긴급 인상을 1만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반면, 누리꾼들은 “돈부터 뿌릴 게 아니라 중간에 도둑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kt1*** 이 정권은 뭐 문제만 터지면 돈부터 뿌리고 보네. 예산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런 거다. 돈 물리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을 없애야지.

isak*** 조리병 흡사 시키지 말고 민간위탁 합시다. 강제로 징병하는데 잘 먹이세요. 아니면 모병제 하든지. 모병제는 인구수 땀에 안 된다고 할 거면서, 납품비리도 철저히 감시하고요. 병사들 먹는 밥에 부수임까지 챙기는 놈들은 감방 보내야합니다.

yktd*** 급식비 올릴게 아니라 중간에 자체 납품 도둑놈을 잡아야지. 내 참, 하는 짓보니 세금만 낭비한다 또.

조성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윤희종 원내대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앞두고 또 홍남기·與 갈등 시작되나

작년 전 국민 지급 때도 기재부 초기에 반대... 결국 與 뜻대로

(면에서 계속) 민주당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가 약 15조원인 것을 감안해 올해 더 견한 세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2차 추경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코로나 피해 지원 등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추경 규모가 급격하게 커질 가능성도 있다. 또 차기 대선을 앞두고 편성되는 추경인만큼 그 규모가 당초 예측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급증하는 국가채무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등에 따르면 올 연말 한국의 국가채무는 3월 1차 추경을 반영할 경우 분예산(956조원)보다 9조9000

억원 늘어난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분예산(47.3%) 때보다 0.9%p 오른 48.2%까지 치솟게 된다.

기재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피해제출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에도 선별지급 원칙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우 기자

靑 간담회... 文 앞에서 암전한 與 초선들 조국·부동산 쓴소리 없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을 주장했던 초선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암전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예상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쓴소리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민초 소속 초선의원 81명 중 68명이 참석했다. 10여명의 의원이 발언하고 문 대통령이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경제적 성과가 있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며 “이에 대한 해결에서 초선들이 매우 중요하다. 혁신성과 역동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에게 청년들의 공정과 주거안정,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소상공인 긴급지원책을 요청했다”며 “재정당국이 공간을 열어 잡는데만 신경쓰지 않도록 대통령이 더 힘써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재난시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촉구해야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81명 중 68명 참석 고영인 “대통령에게 물을 이유 의원들 못 느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가운데)이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다는 말들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천준호 의원이 LH의 과감한 인적쇄신과 교차보존 폐지, 원가공개,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 공급 등을 건의했으며 장경태 의원은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 청년 주거책임제 등을 제안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석탄발전소 7개의 가동 예정 재검토와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확대를, 신현영 의원은 대기업 중심 백신 휴가제를 정부가 주도해 중소기업이나 일용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선 조 전 장관 및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고 의원은 “대통령에게 물을 이유를 의원들이 못 느꼈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